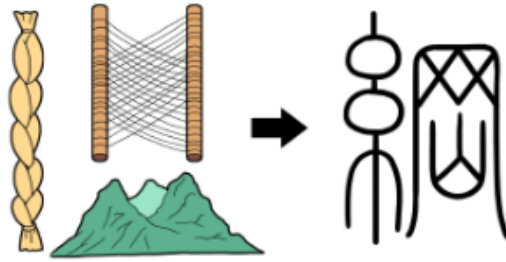


3(2)
-
11

회의문자①



綱

벼리 강

綱자는 '벼리'나 '대강', '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綱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岡(산등성이 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岡자는 산 위에 그물을 쳐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산등성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강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니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岡자와 糸자가 결합한 綱자는 '강한 줄'이나 '튼튼한 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綱자는 주로 '사물을 총괄한다'나 '일의 뼈대'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는 다른 여럿의 중심이 되는 굵고 강한 줄이라는 의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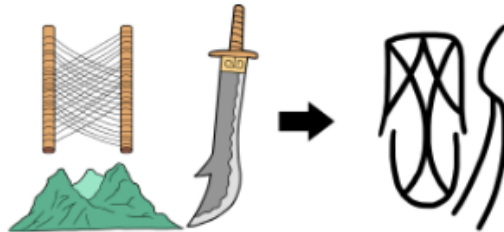
소전

綱

해서

3(2)
-
12

회의문자①



鋼

강철 강

鋼자는 '강철'이나 '단단하다', '굳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鋼자는 金(쇠 금)자와 岡(산등성이 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岡자는 산에 그물을 친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산등성이'라는 뜻이 있다. 본래 소전에서는 산의 강인함을 뜻하던 岡자에 刀(칼 도)자를 더한 剛(굳셀 강)자가 '강철'이나 '굳세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는 金자가 들어간 鋼자가 만들어지면서 '강철'을 뜻하게 되었고 剛자는 '굳세다'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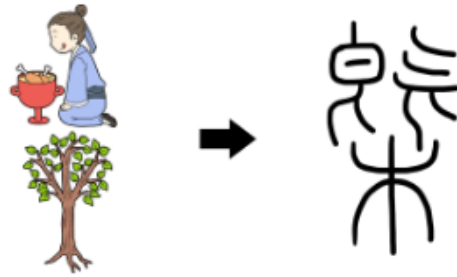
소전

鋼

해서

3(2)
-
13

형성문자①



概

대개 개:

概자는 '대개'나 '대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概자는 木(나무 목)자와 既(이미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既자는 식기를 앞에 두고 배불러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概자는 본래 '평미래'라고 하는 방망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평미래란 '말'이나 '되'에 곡식을 담아 그 위를 평평하게 미는 도구를 말한다. 그러나 후에 '대개'나 '대강'이라는 뜻이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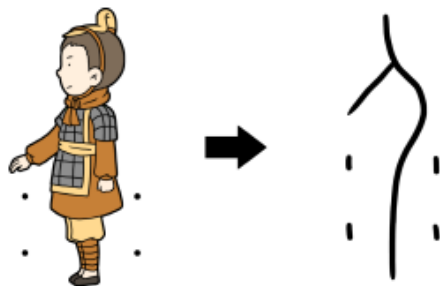
소전

概

해서

3(2)
-
14

회의문자①



介

낄 개:

介자는 '(사이에)끼다'나 '소개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介자는 人(사람 인)자 아래에 두 개의 획이 그어져 있는 모습이다. 介자의 갑골문을 보면 人자 옆으로 4개의 점이 찍혀있는 𠂆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갑옷을 끼어 입는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의 갑옷은 철 조각을 이어붙인 것이었고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끈을 조여 입었다. 介자는 이렇게 팍 조여 입는 갑옷이라는 의미에서 '사이에 끼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갑옷은 혼자 입기 어려웠기 '도움'이나 '시중'이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𠂆

갑골문

介

금문

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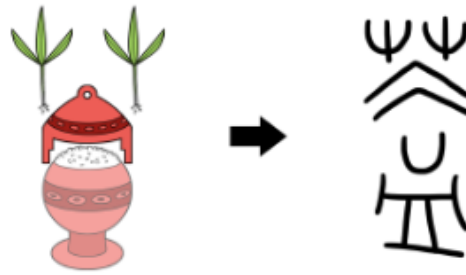
소전

介

해서

3(2)
-
15

상형문자 ①



蓋

덮을
개(·)

蓋자는 '덮다'나 '뚜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蓋자는 艸(풀 초)자와 盥(덮을 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盥자는 뚜껑이 있는 보관함을 그린 것으로 '덮다'나 '합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덮다'나 '뚜껑'이라는 뜻은 盥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덮개의 재질을 뜻하기 위해 艸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蓋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蓋자는 이외에도 '모두'나 '대략'으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기도 한다.

蓋

금문

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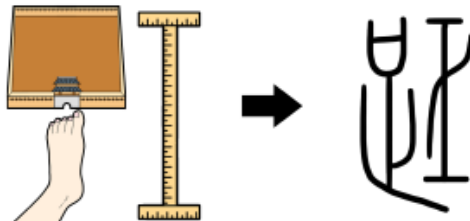
소전

蓋

해서

3(2)
-
16

회의문자 ①



距

상거(相
距)할
거:

距자는 '떨어져 있다'나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距자는 足(발 족)자와 巨(클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巨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큰 자를 그린 것으로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距자는 본래 닭의 뒷발 톱을 뜻했던 글자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머느리발톱'이라고 한다. 距자는 닭의 앞발톱과 뒷발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큰 자를 그린 巨자를 응용해 만들어진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떨어지다'나 '떨어져 있다'라는 뜻만 남게 되었다.

距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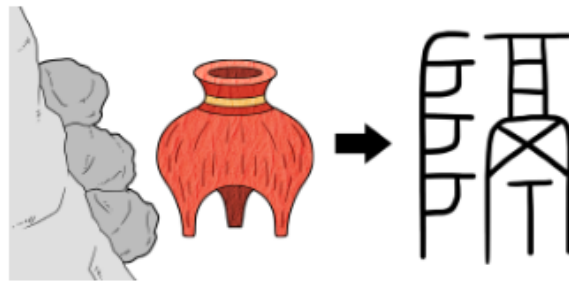
距

소전

距

해서

3(2) - 17	<div>회의문자①</div> <div></div>						
乾 하늘/마를 건	<p>乾자는 ‘하늘’이나 ‘마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乾자는 韎(햇빛 빛날 간)자와 乙(새 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韎자는 햇빛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초목 사이에 해가 있으니 대지를 밝게 비추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乙자를 더한 이유는 무엇일까? 乙자의 사전적 의미는 ‘새’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아지랑이로 응용되었다. 하늘이 맑은 날 햇빛이 대지를 달구게 되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게 된다. 乾자에 쓰인 乙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p> <table><tr><td></td><td></td></tr><tr><td>소전</td><td>해서</td></tr></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3(2) - 18	<div>회의문자①</div> <div></div>						
劍 칼 검:	<p>劍자는 ‘칼’이나 ‘베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劍자는 兪(다 첨)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兪자는 많은 사람이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다’나 ‘남김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金(쇠 금)자가 들어간 鎧(가래 첨)자가 ‘칼’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이것이 칼과 관계된 글자임을 뜻하기 위해 刀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劍자가 만들어졌다. 사실 劍자는 칼 중에서도 ‘양날 검’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劍자에 ‘모두 다’라는 뜻을 가진 兪자가 쓰인 것도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을 뜻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漢)나라 때부터는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지금은 큰 구분 없이 ‘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p> <table><tr><td></td><td></td><td></td></tr><tr><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금문	소전	해서
							
금문	소전	해서					



隔

사이뜰
격

隔자는 '사이'가 '뜨다'나 '막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隔자는 阜(β: 언덕 부)자와 鬲(막을 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鬲자는 밑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항아리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바닥에 틈이 있는 항아리를 그린 鬲자에 阜자가 결합한 隔자는 산과 산 사이에 지나다닐만한 공간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지금의 隔자는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이 동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𠂇

소전

隔

해서

$$\frac{3(2)}{20}$$

訣

이별할
결

형성문자 ⓘ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 言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夬(결)이 합(合)하여 이루어짐.